

## 전남서남권 지역 경제일지

(2023년 10월중)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 공동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도는 4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초저출산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와 과제 발굴을 함께 추진한다.</li> <li>○ 전남도도는 그동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각종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022년 6월)에 앞장서 왔고, 전국 최대 규모 지방소멸 대응 기금 3천80억 원도 확보했다.</li> </ul> </li> </ul>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남도, 무안에 케이푸드 융복합산업단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도는 최근 케이푸드 열풍으로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첨단스마트 제조기업의 입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케이푸드 융복합산업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무안에 케이푸드 융복합 산업단지를 개발하며, 전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재원 확보, 기업 투자유치 지원 등에 나선다.</li> <li>○ 전남도와 무안군, 전남개발공사는 무안의 풍부한 농업 기반시설과 우수한 교통망,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물류기반 시설을 활용해 전남의 농수산물 가공 산업과 에그테크 관련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푸드 융복합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조성 단계 건설투자 및 민간기업 유치 등에 따른 2천71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693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li> </ul> </li> </ul>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진군-백종원 손잡고 강진 발전 프로젝트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진군이 지역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남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와 상생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더본코리아와 예산군이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가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전국의 지자체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백종원과 함께 ‘강진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li> <li>○ 강진군은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강진 분원을 유치해 창업 등에 필요한 컨설팅, 시설 지원 등 모든 분야에 대한 행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진읍시장과 오감통 먹거리타운부터 시작해 시장 주변 상가로 확대하고 이후 강진읍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3단계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li> </ul> </li> </ul>
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충동권역 농산어촌개발사업 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금일 충동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 9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금일읍 충동권역에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특화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어촌 마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귀어 체험 하우스, 청장년 교류 센터, 육아 돌봄 복지회관, 경로당을 조성하고 방과제 연장 등 어항시설 개선, 차량통행로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li> </ul> </li> </ul>

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암군이 본격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11일 2024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최저가격 보장 시범사업’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영암군은 2~3품목을 대상으로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암형 가격안정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2026년까지 기금 1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li> </ul> </li> </ul>
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 행안부 ‘골목경제활성화’ 공모사업 최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인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69개 지자체가 참여한 결과 2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 목포시는 9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북항 뒷개 일원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투입하며 (1) 뒷개 청춘골목 브랜딩 구축 (2) 골목 환경개선 (3)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4) 상권육성 및 상인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li> </ul> </li> </ul>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 전국체전으로 관광객 유입효과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지난 13일 목포시 목포종합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목포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올해 목포 방문 관광객이 지난해 73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540만여 명이 목포를 찾았는데, 전국체전 이후인 4분기까지 하면 방문 관광객이 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이번 체전을 통해 전남 도내 1,952억원 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되면서 전국체전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li> </ul> </li> </ul>
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안군, 햇빛연금 3년 만에 100억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안군은 21년 4월 지역주민들에게 햇빛 연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3년 만에 햇빛 연금 100억을 돌파한다. 신안군은 2018년 지역주민과 태양광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햇빛연금을 지급한 지역은 안좌, 자라, 지도, 사육도, 임자도 등 다섯 군데로 총 10,775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급액은 2021년 17억, 2022년 36억, 2023년 3분기까지 47억으로 햇빛연금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li> <li>○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햇빛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후 2023년 5월에 신안군 내 18세 미만 아이들 약 2,0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에는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는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li> </ul> </li> </ul>

10.23	<p>▶ 영암군, 내년 생활임금 10,500원 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암군은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500원으로 결정했다. 이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00원 대비 4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천 860원 보다 640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수당 등 항목에 지급되며 영암군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23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li> <li>○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영암군은 2022년 4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23년 생활임금을 첫 적용했다.</li> </ul>
10.25	<p>▶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6곳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는 지역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사업을 육성·지원하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II단계)' 공모에 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사업은 (1) 무안군 '맛플 무안 먹거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2) 영광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3) 완도군 '힐링해 완도 프로젝트', (4) 여수시 '새로운 경험으로 남도의 중심 여수 만들기', (5) 순천시 '생태&amp;과학 미래 교육센터 조성', (6) 나주시 '반려동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2024년부터 3~4년간 635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li> </ul>
10.26	<p>▶ 목포시, 택시요금 인상 및 사업구역 통합 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시 택시 기본요금이 11월 1일부터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의 인상이며,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다룬 시·도의 평균 인상률을 감안해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은 종전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이 오르면,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15km/h이하 주행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인상된다.</li> <li>○ 또한, 목포-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따라 목포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포함) 간 지역은 목포·무안택시 모두 영업이 가능하며, 요금 또한 시계외 요금이 아닌 목포시 관내 요금이 적용된다.</li> </ul>